

홈 > 문화

제페토에 뜬 'K-트래블 헌터'..글로벌 Z세대 잡는다

유승목 기자

2022.11.10 10:23

한국관광공사, 제페토에 한국관광 테마월드 시리즈 제작...14개 인구감소지역 포함 33개 지자체도 힘 보태



/사진=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국내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한국관광 테마월드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주요 방한시장인 아시아와 디지털 소통에 익숙한 Z세대를 겨냥해 제작했다. K-컬처와 연계한 한국 관광콘텐츠를 게임 등 놀이의 형태로 즐기면서 잠재적으로 한국을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사가 제작한 시리즈는 '영화 속 트래져 헌터처럼 보물 같은 한국관광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트래블 헌터-K'란 주제로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트래블 헌터-K'가 되어 한국 테마월드를 모험한다는 내용이다. 공사 대표 캐릭터인 호종이의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의 산과 계곡을 달리는 '타이거 마운틴'과 지역음식을 소재로 한 야시장, 시대별 한복 등 한국 문화와 동·서·남해를 순환하는 바다열차 등의 8개의 테마를 경험할 수 있다. 각 시리즈는 오픈 이벤트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번 시리즈 제작에는 지역관광 주체인 지자체도 적극 참여했다. 전국 14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33개 지자체들이 지역 대표 관광지 선정부터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주제기획과 자료수집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주 출신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친필 사인과 메시지가 새겨진 기념 조형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로 급부상한 울산 고래문화마을 등 지역관광자원이 8개 테마월드에 반영됐다. 제페토 사용자 선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충북 '레이크 월드' △춘천 '닭갈비 마을' △삼척 '비밀의 숲' △대전 '꿈돌이 동산' △영광 '다시 만난 사랑 상사화' 등의 지자체 월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12월4일까지 한국관광 테마월드 오픈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페토의 여러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활용해 한복, 한국어 학습, 지역관광 투어 등 외국인들이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현실 속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선물한다. 이 밖에도 제페토에서 아바타 의상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잼을 건 다양한 미션들도 수행할 수 있다.

호수영 공사 디지털혁신팀장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관광지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한국관광 콘텐츠를 제공코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